

들쭉날쭉한 국내경기, 업계 내 격차

~ 임금과 주가상승으로 개인소비 관련이 호조 ~

(조사대상 2만 3,587사, 유효회답 1만 664사, 회답율 45.2%,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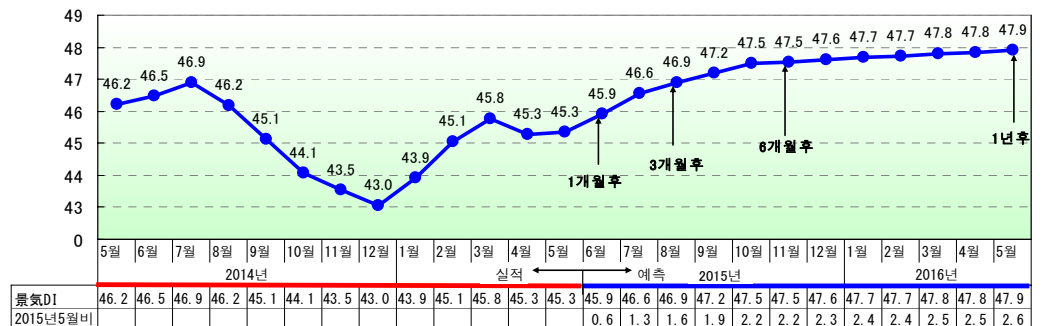
- 5월의 경기DI는 전월과 같은 수준인 45.3을 나타내었다. 임금과 주가의 상승, 일본방문 여행객의 증가 등으로 개인소비 관련이 증가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발주건수가 감소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또다시 가격인하 경쟁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국내경기는 업계내에서도 경기회복의 격차가 보이며, 상승기조 속에서 들쭉날쭉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국내 경기는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업계별로는 『부동산』 『소매』 등 10개 업계 중 5개 업계가 개선되었으며, 『금융』 『건설』 등 4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특히 『소매』는 임금상승과 하절기 상여금의 기대가 더해진 가운데, 내수소비의 확대와 주가상승에 의한 자산효과 등으로 고가물품의 판매도 증가하여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 지역별로는 『홋카이도』 나 『토카이』 등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개선된 한편, 『도호쿠』 『시코쿠』 등 5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홋카이도』는 일본방문 관광, 단체관광이 호황을 이루었으며 「여관, 호텔」 이나 「오락서비스」 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등 4개월 연속 개선경향이 지속되었다

< 2015년 5월의 동향 : 상승기조 가운데 들쭉날쭉한 움직임 >

2015년 5월의 경기DI는 전월과 같은 수준인 45.3을 유지하며 경기변동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5월의 국내경기는 환율이 일시적으로 2002년 12월 이래 약 12년 만의 최저치인 1달러 = 124엔 대를 기록, 엔저와 기업업적의 회복을 배경으로 1988년 이래 27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니케이 평균주가가 11영업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였다. 대기업 중심의 베이스업 실시에 의한 임금상승과 하절기 상여금의 기대가 높아져 있으며, 주가상승과 내수소비가 확대되어 『소매』 나 「여관, 호텔」 「오락서비스」 등 개인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공공사의 발주건수가 감소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격인하 경쟁이 또다시 시작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건설』 업계의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일부 업종에서 체감경기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나, 동종업계에서조차 경기회복에 격차가 보이며, 상승기조 속에서도 들쭉날쭉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향후 전망 : 완만히 개선 >

대기업 중심의 베이스업의 실시가 중소기업으로 서서히 확대되는 가운데 임금과 상여금의 증가가 기대되는 한편, 9월의 실버위크에 의한 수요의 확대로 개인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수요는 지진재건 이외에도 신칸센 정비나 도쿄올림픽 등의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마이넘버 제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지연이 지적되는 가운데 코스트 부담을 걱정하는 한편,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엔저현상의 지속화가 수입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반면, 소득환경의 개선에 의한 개인소비의 회복이 완만한 경기개선의 견인역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규모별 : 「대기업」 5개월 연속 개선, 「중소기업」은 보합

· 「대기업」이 49.2 (전월비 0.3포인트 증가), 「중소기업」이 44.3 (전월과 동수준), 「소규모기업」이 43.2 (전월비 0.1포인트 증가)가 되었다. 「대기업」은 5개월 연속으로, 「소규모기업」은 2개월만에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중소기업」은 여성복 소매, 통신판매 분야 등에서 개선을 보인 『소매』 등의 4개 업계가 개선된 반면, 지방의 공공공사가 저조한 『건설』 등 6개업계가 악화되었다. 「대기업」은 일반 여행업이나 화물 자동차운송 등이 개선된 『운수, 창고』와 스마트폰 관련 전자부품, 에너지절약 관련분야가 견조했던 『제조』 등 5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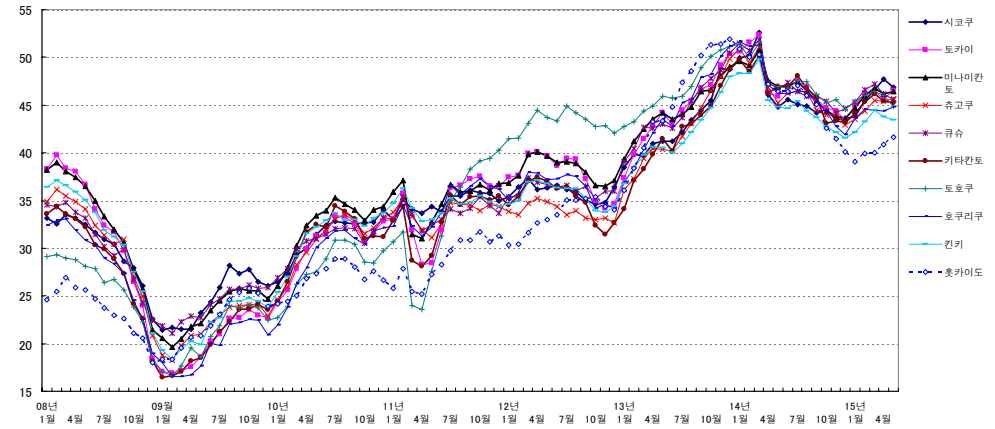
	14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비
대기업	49.3	50.0	49.7	49.2	48.1	47.5	46.9	46.6	47.1	48.0	48.6	48.9	49.2	0.3
중소기업	45.3	45.4	46.1	45.3	44.3	43.1	42.6	42.0	43.0	44.2	45.0	44.3	44.3	0.0
(그 중 소규모기업)	45.0	45.0	45.3	44.7	44.0	42.5	42.1	41.6	42.3	43.4	44.3	43.1	43.2	0.1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4.0	4.6	3.6	3.9	3.8	4.4	4.3	4.6	4.1	3.8	3.6	4.6	4.9	

※색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또는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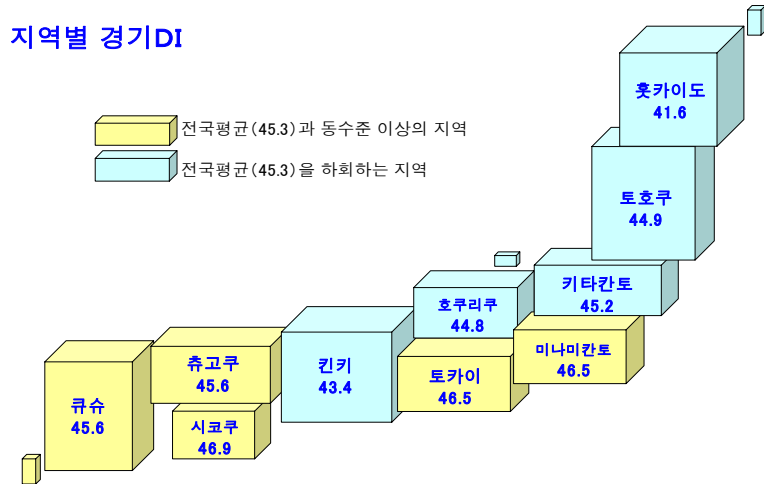
지역별 : 10개 지역 중 5개 지역개선, 「홋카이도」는 4개월 연속 개선지속

- 『홋카이도』 『토카이』 등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개선, 『토호쿠』 『시코쿠』 등 5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나 주요제조업이 견조했던 지역의 경기는 개선된 반면, 공공공사의 발주감소나 급격한 기후변화에 직면했던 지역에서 악화경향을 보이는 등, 경기동향에 지역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드러났다.
- 『홋카이도』 (41.6) ...동 0.8포인트 증가. 4개월연속 개선. 기업의 단체객 증가로 숙박객이 늘어나고 있는 「여관, 호텔」, 중국 등 일본방문 여행객으로 호조를 보이는 「오락서비스」 등 『서비스』 (동2.1포인트 증가)가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기계제조」나 「철강, 비철, 광업」 부분이 견조했던 『제조』 (동2.3포인트 증가)가 3개월 만에 개선되는 등 10개 업계중 3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반면에 6개 업계가 악화 되어 개선과 악화의 격차가 현저하게 드러났다.
- 『토카이』 (46.5) ...전월비 0.9포인트 증가. 2개월만의 개선. 『소매』 (동6.1포인트 증가)는 의약품, 자동차, 가전 등 넓은 업종에서 개선되었다. 더욱이 『부동산』 (동4.0포인트 증가)은 「분양시장의 견조」(임대) 등 회복경향이 현저히 나타나며 7개월만에 50을 상회하는 등 10개 업계 중 7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 『시코쿠』 (46.9) ...동0.8포인트 감소. 6개월만의 악화. 단가상승이나 노동력 부족이 계속된 『건설』 (동2.7포인트 감소), 4월의 일조부족, 5월의 소우(小雨)현상으로 식품가격이 상승한 『소매』 (동2.5포인트 감소)가 4개월만에 악화되는 등 10개 업계 중 5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규모별 구분도 8개월만에 모든 항목이 악화되었다.

지역별 그래프 (2008년 1월 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DI



	14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비
홋카이도	46.4	46.4	47.0	46.0	45.0	42.5	41.5	40.1	39.1	39.9	40.0	40.8	41.6	0.8
토호쿠	46.9	46.8	47.6	47.5	46.1	45.2	45.6	44.5	45.4	46.0	46.5	46.0	44.9	▲ 1.1
기타칸토	46.9	47.0	48.1	46.8	45.8	43.1	43.4	43.2	44.1	45.3	46.2	45.4	45.2	▲ 0.2
미나미칸토	46.9	47.1	47.4	46.5	45.4	44.4	43.8	43.6	44.7	46.0	46.8	46.2	46.5	0.3
호쿠리쿠	46.2	46.2	46.5	46.3	45.2	44.3	42.8	41.9	43.6	44.6	44.4	44.4	44.8	0.4
토카이	45.9	46.9	47.5	47.0	45.6	44.7	44.4	43.4	45.0	46.3	46.4	45.6	46.5	0.9
킨키	44.8	44.6	45.4	44.4	43.7	42.7	42.1	41.5	42.2	43.2	44.5	43.7	43.4	▲ 0.3
큐슈	45.3	46.3	46.5	46.4	44.5	43.9	44.0	42.9	43.6	44.4	45.5	45.4	45.6	0.2
시코쿠	44.8	45.6	45.1	44.9	44.2	44.5	43.5	43.6	43.8	45.5	46.6	47.7	46.9	▲ 0.8
격차	2.1	2.8	3.0	3.1	2.4	2.9	4.1	4.6	6.3	6.7	7.2	6.9	5.3	

※색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또는 감소를 나타냄.